

대한 국인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100인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오민준 글씨문화연구소

목차

안병무 [강승은]	8	이재명 [변숙연]	76	이동휘 [임시현]	144
최은식 [구지영]	10	우재룡 [변순옥]	78	연병호 [장은영]	146
권동진 [권혜숙]	12	신석구 [서영민]	80	김공집 [전미정]	148
최수봉 [김나은]	14	홍 진 [서윤정]	82	김마리아 [전선주]	150
손병희 [김대영]	16	이인영 [손희정]	84	연기우 [전 정]	152
최세윤 [김민아]	18	이상룡 [송옥진]	86	박영준 [정미숙]	154
조인제 [김상옥]	20	이인식 [송재익]	88	스코필드 [정미애]	156
서 일 [김석중]	22	심수택 [신유리]	90	박 열 [정미화]	158
채기중 [김소연]	24	강무경 [신주영]	92	신규식 [정소희]	160
노백린 [김수미]	26	이은찬 [심규정]	94	송진우 [정유진]	162
오영선 [김연주]	28	이원직 [안주희]	96	유동열 [정은정]	164
이상설 [김은옥]	30	조경한 [양서윤]	98	손승억 [정희자]	166
정찬조 [김정옥]	32	박찬익 [양승희]	100	강우규 [조선옥]	168
정서송 [김진아]	34	조소양 [오민준]	102	김학규 [조성령]	170
임국정 [김창묵]	36	이 강 [원희진]	104	이범윤 [조영진]	172
이 탁 [김춘여]	38	김순애 [유미진]	106	한용운 [조정옥]	174
현 순 [김현성]	40	손정도 [유설영]	108	박재혁 [조진경]	176
안창호 [김현중]	42	이병목 [유춘화]	110	장진홍 [조혜란]	178
이종일 [김희경]	44	고이허 [유한나]	112	윤봉길 [주현정]	180
기산도 [김희정]	46	방정환 [윤경호]	114	박승환 [최동준]	182
이진룡 [남은아]	48	안중근 [윤경희]	116	신익희 [최민숙]	184
유해준 [박상규]	50	이범석 [윤유선]	118	박동완 [최선옥]	186
나석주 [박선영]	52	이명하 [이강호]	120	지청천 [최은정]	188
백용성 [박선희]	54	남자현 [이문섭]	122	이회영 [최정화]	190
유여대 [박수진]	56	권병덕 [이상우]	124	민필호 [최혜진]	192
이중언 [박순희]	58	윤세복 [이영주]	126	신돌석 [탁혜진]	194
주기철 [박시현]	60	이 기 [이영희]	128	노복선 [탄공스님]	196
김 구 [박양재]	62	유관순 [이우진]	130	박은식 [표시근]	198
김규식 [박영은]	64	오광선 [이유진]	132	남영득 [한지혜]	200
양기탁 [박진숙]	66	이강훈 [이지민]	134	송병조 [허지혜]	202
이규창 [박혜란]	68	한 훈 [이지연]	136	송학선 [홍예빈]	204
김승곤 [방은조]	70	안재홍 [이춘희]	138	이수홍 [홍지영]	206
이재현 [배연수]	72	김동삼 [이해정]	140		
이신애 [배정원]	74	조명하 [임선희]	142		

송진우

1889.05.08-1945.12.30

언론_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지사-198]

우리는 조선(朝鮮)사람이다. 그러므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새가 수림(樹林)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도저히 조선을 떠나서는 또한 조선을 잊어버리고서는 일각일초(一刻一秒)라도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이리하여 자거나 깨거나 듣거나 보거나, 잊으려 하여도 잊을 수 없는 것이 현하(現下) 우리 동포의 심리적 상태(狀態)인가 한다. 그러면 조선을 위하여 웃을 사람도 우리 동포요, 또한 조선을 위하여 곡할 사람도 우리 형제일 것은 물론이다.

송진우,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 《동아일보》 1925년 8월 28일-9월 6일

1890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송훈(宋薰)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한문을 공부하는 한편, 기삼연(奇參衍)에게서 수학했다. 1907년 변산 내소사(來蘇寺)의 청련암(靑蓮庵)에서 공부하던 중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군산 금호학교(金湖學校)에서 공부했다. 그 해 10월 김성수(金性洙)와 함께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1910년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 입학했다. 그러나 경술국치를 당하자 귀국했고, 이듬해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과에 입학해 1915년 졸업했다. 1916년 김성수와 함께 중앙학교(中央學校)를 인수하고, 학감으로 취임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 넣는데 힘썼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뒷일을 맡은 48명 중 한사람으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1년 김성수의 뒤를 이어 동아일보의 3대 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충무공 유적 보존운동, 농촌계몽운동 등을 전개했다. 1925년 6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汎)태평양회의에 신흥우와 함께 참석해 각국 대표들에게 실상을 알리는데 힘쓰기도 했다. 1940년 『동아일보』가 폐간되자 동본사(東本社)를 설립해 동아일보사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노력했다.

1945년 8월 조선총독부로부터 정권 인수 교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해방 직후 여운형(呂運亨)이 주축이 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맞서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절대 지지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대회준비회를 결성해 위원장에 추대되었다. 이후 한국민주당의 수석총무로 우익세력의 규합에 앞장서는 한편, 주한미군사령관 J.R.하지의 행정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45년 12월 27일의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한국 신탁통치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12월 30일 종로구 원서동 자택에서 한현우에게 암살당했다.

1963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정유진 심뽀글씨디자인연구소 소속 작가 · 국립서울현충원 캘리그래피 추모글 '6.25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전시 참여 · 제7회 캘리콘서트 '그때 그 사람' 전시 참여
C : 010-5001-2845, E : yujin2539@naver.com, H : www.instagram.com/art_ujin

대한 국인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100인

초판 1쇄 2019년 3월 1일

역은이 |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

편집 | 윤경희·이우진

디자인 | 인준철

타이틀 | 오민준

인쇄 | 웨스트블루

발행처 | 국립서울현충원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전화 | 02-815-3625

발간등록번호 | 11-1291060-000021-01

ISBN | 979-11-958403-4-2-03600

·국립서울현충원의 「독립·국가유공자 공훈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고하여 독립운동가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지하며,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오민준글씨문화연구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